V. 外國의 事例와 示唆點

1. EU

□ EU 손해보험 제3차 지침(The Third Non-life directive)의 발효(1994. 7)에 따라 각국별 자국법으로 자유화 수용

- 시장구조(market structure)

o **규모경쟁 지양/** 특정사 시장점유현상 감소
o 상품의 가격/조건 등 **시장의 투명성 감소**

* 가격자유화의 근본적 취지인 가격산출 구조 등의 투명성 제고/ 반면, 상품 및 담보조건의 다양화로 정보의 비대칭화 증대
→ 시장의 투명성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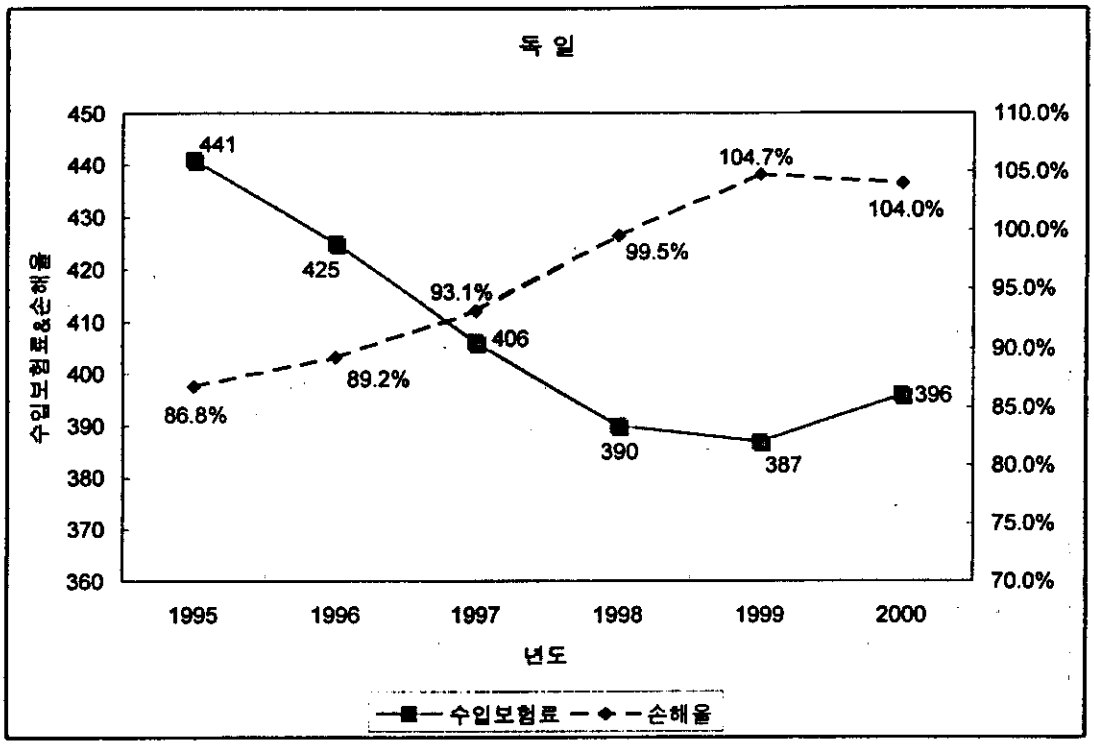
- 시장행동(market conduct)

o **시장경쟁요소(가격/상품/언더라이팅 기준/판매방법 등)의 다변화**
o **경쟁 가속화**

- 시장결과(market result)

o **가격인하 압력증대**(규제완화/인수경쟁/신규진입자/새로운 판매채널)로 수입감소/이익감소/지급불능사 출현
o **보험가용성(availiability) 문제 대두**

□ 독 일



- 자유화 초기('94. 7) : **보험료 증가율의 급격한 축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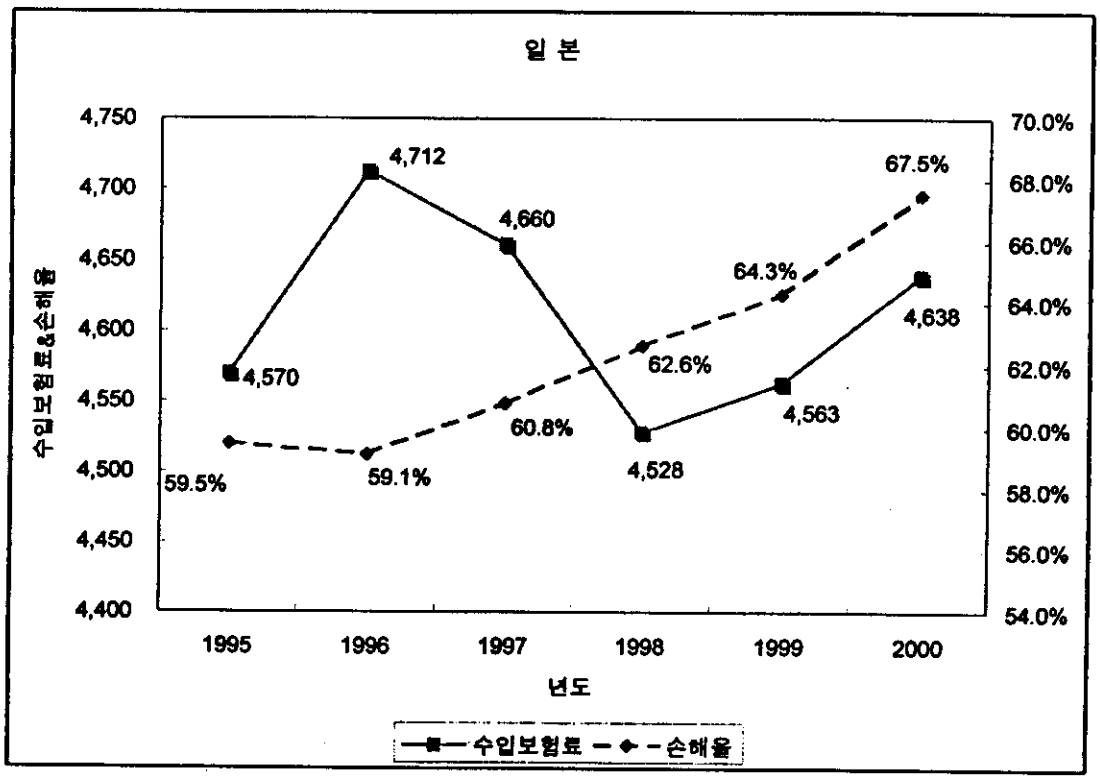
→ '96년 마이너스 성장

o 약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**'99년 이후 저속 회복**

o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 : **'99년이후 100% 상회**

- 시장의 리더사인 **Allianz사가 M/S 유지를 위해 가격경쟁 돌입**

2. 일본



- 자유화 시행('96년) 이후 '97년에 마이너스 성장 → 수입보험료 축소/ 손해율 증가

o '98년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증폭/ '99년 플러스 성장 전환

- 사회적 혼란의 방지를 위해 최저한의 리스크세분형 가이드라인의 설정(보험업법 시행규칙)/ 보험사의 고보장 상품개발/가격경쟁 회피 노력 등 → 자유화 충격 흡수

* 손해율은 보험료 감소/ 사고 증가로 증가 추이

3. 시사점

- 최근 자유화를 추진한 **독일과 일본의 대조적 결과**

o 독일의 경우 **약 3년간 보험료의 대폭 감소 후 2000년 플러스 성장**
o 일본의 경우 단기간 3~4%의 보험료 인하 후 플러스 성장/ **가격경쟁을 촉발하는 지역요소의 배제(기존사) 등**

< 독일/ 일본의 대응전략과 결과 >

독 일	일 본
- 리더사인 **Allianz사가 경쟁사/ 신규채널에 대응하여 가격경쟁** - **기존채널에 대한 평가 미흡** - **과당경쟁 자초 판단**	- 양대 리더사인 동경해상은 **고보장 상품으로 대응/** 야스다화재는 **외국사의 리스크세분형에 맞대응** - **양사 M/S 소폭 증가/** 기존사 변화 미비

⇒ 자유화에 따른 회사별 경영전략은

o **낮은 가격을 찾는 shopping 성향 정도**
o 보험사에 대한 **loyalty 수준**
o 가격보다 **질 좋은 서비스 선호 고객 비중**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의 대안 제시